

'탱화'는 '불화'로 불러야 정확

고려~조선때 탱화는 '거는 그림'의 뜻

한국미술사교육학회(회장 홍선표)가 17일 개최한 제 14회 전국학술회 '미술사와 언어'는 어찌 보면 '상식 뒤집어 보기'이다. 현재 미술사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생성 과정과 정확한 의미를 재검토해 보려는 시도가 드물기 때문만은 아니다. 홍선표 교수(이화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는 "국내 미술사학자들과 미술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미술 용어들은 대부분 근대기에 형성된 것으로, 용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없이 남용되거나 오용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불교 미술 분야에 서는 '탱화(幀畵)'가 대표적이다. 이날 '불교미술 서술의 용어 문제'를 발표한 정우택 교수(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는 "탱화는 불화의 또 다른 명칭이라 할 만큼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 불화의 화기가 문헌에 많이 나타나 '幀(幀)'이라는 글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탱(幀)'은 '불화(佛畵)'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불화를 '탱화'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탱화 대신 '불화'라는 용어를 쓰자고 제안했다."

정 교수의 얘기를 더 들여다보자. 불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를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게 '탱화' 또는 '○○탱'이다. 불화가 문화재로 지정될 때도 '○○탱'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정하는 문화재위원회에 따라 '○○탱'과 '○○圖'를 뒤섞어 쓰기도 한다.

畫·像·화불·繪像은 모두 불화 지칭

그러나 현존하는 불화의 화기(畵記)와 문헌 자료에 등장하는 '탱'의 용례를 검토한 정 교수는 "고려~조선시대에 '탱'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거는 그림'이라는 뜻으로 사용됐고, '一幀'처럼 숫자 다음에 자주 쓰이는 것으로 봐 불화와는 상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논평자로 나선 박은경 교수(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는 "'탱화'를 '불화'로 대체하는 것은 단순히 용어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불화의 분류나 유형화의 문제와 연관되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화에는 탱화뿐 아니라 벽화나 사경화(두루마리 형의 경전 그림) 등이 포함되어 있



◇조선전기 불화인 관경16관변상도(1465년 조성, 일본 첩원(石城) 소장). 화기에 '존탱(尊幀)'이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불화와는 관계없는 '거는 그림'이라는 뜻이라는 게 정우택 교수의 주장이다.

는데 이를 구별할 수 있는 분류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탱화'는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어인데, 우리 불화만의 독창성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幀)을 왜 '탱'으로 읽게 됐는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원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절(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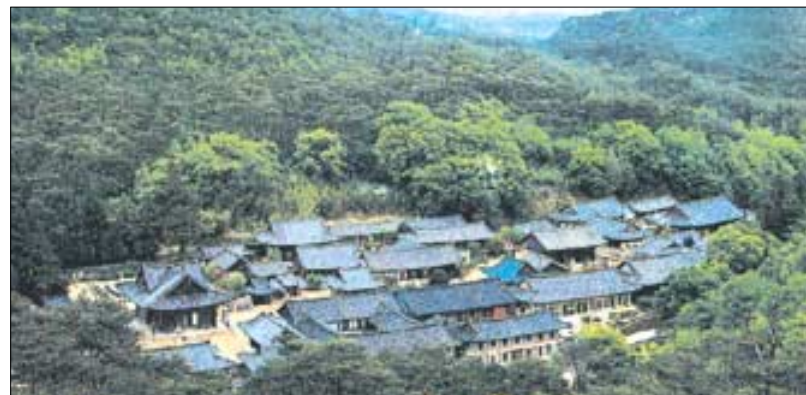
통도사의 세 영역

영취산 자락에 포근하게 자리 잡은 통도사. 자장율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던 인도의 영취산을 신라 땅에 구현하고자, '이 산이 인도의 영취산과 통한다'는 뜻의 통도사를 건립하였다. S자형으로 구비치는 계곡을 왼쪽에 끼고 산 위를 향해 길게 자리 잡은 통도사는 언뜻 그 배치 복잡해 보이는데, 다행히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여 상로전·종로전·하로전의 세 영역으로 분별하여 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

석파(石坡) 대원군(大院君)이 힐튼 대자(大字)로 쓴 '영취산통도사(靈鷲山 通度寺)'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 일주문을 들어서면 곧바로 천왕문이 보인다. 구비치는 계곡의 지세처럼 약간 휘어진 길을 따라 천왕문에 다다르면 첫 번째 영역인 석가모니불의 공

시는 관음전이 즐비해 있다. 대광명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용화전이며, 맨 앞의 관음전이 가장 작다. 마치 키 작은 순서대로 앞으로 나란히 하는 모양의 배치이다. 석가모니불의 영역이 'ㄱ'자형으로 안으로 모이는 형국이라면, 비로자나불의 영역은 'ㄷ'자형으로 밖으로 발산하는 모습이다.

마당 쪽으로 특이하게 나온 관음전은 자연스럽게 다음 영역과 나누는 경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앞을 지나면 바로 불사리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다. 불사리의 영역은 통도사 창건과 관계되는 핵심공간이다. 통도사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진산사리를 모신 금강계단과 그 오른쪽에 창건설화에 등장하는 구름지가 있다. 내부에 들어서면 금강계단을 향해서 옆으로 깊숙하게 벽체를 개방하여 금강계단에 예배할 수



◇통도사 전경. 왼쪽부터 불사리의 영역, 비로자나불의 영역, 석가불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가불·비로자나불·불사리 구역 안배

저마다 독특한 공간에 다양한 건물 배치

간이 펼쳐진다. 북쪽에는 석가모니불이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에서 이름을 딴 영취산전이 자리 잡고 있고, 오른쪽에 극락보전과 왼쪽에 약사전이 이를 호위하고 있다. 이 구역은 석가삼세불(釋迦三世佛)의 형식을 건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불상이나 불화를 삼세불로 나타낸 경우는 있어도 건물로 보여준 것은 매우 드문 예이다. 그 앞에 강당인 만세루가 막아서고 있어 전체적으로 'ㄱ'자의 공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시 구역을 나누고 진리를 상징하는 불이문을 들어서면 두 번째 영역을 만나게 된다. 이 영역은 석가모니불의 영역과 그 배치가 전혀 다르다. 북쪽의 맨 끝에 비로자나불을 봉안한 대광명전이 있고, 그 앞에 미륵불을 모신 용화전, 또 그 앞에 관음보살이 계

있게 배려하였다. 하지만 이 건물의 외벽에는 각 방향마다 금강계단, 대웅전, 대방광전, 적멸보궁으로 각기 명칭이 다른 현판이 달려있다. 정면을 취하면서 정면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쪽 방향에 얽매이지 않고 사방으로 열려있음을 상징한다. 정자각의 구조와 더불어 그 옆에 자장율사의 진영을 모신 건물의 입구도 삼문(三門)으로 되어 있어 조선후기에 유교건축이 사찰건축에 미친 영향을 엿볼 수 있다.

통도사의 중심을 이루는 세 영역. 그것들은 나름대로 독특한 공간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들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통도사의 다양한 건물군은 우리 건축의 보배로운 존재인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소조불상 등 백제유물 다량 발굴

원광대, 익산 왕궁리 가마터 조사



◇전북 익산 왕궁리 와요지에서 출토된 소조전부상.

전북 익산 왕궁면 왕궁리에서 흙을 구워 만든 불상 등 삼국시대 불교 관련 소조상들이 다량 출토됐다. 흙으로 구운 불상과 이를 굽던 가마터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부터 익산 왕궁리 와요지(와요리)와 관련된 발굴조사(정식 발굴 전의 시험 발굴) 중인 원광대 박물관(관장 최순택)은 16일 "지금까지 와요지로만 알려져 온 이곳에서 흙으로 만든 여래상과 보살상, 천부상, 악구 및 동물상 등 삼국시대 조상(彫像)들이 처음으로 확

인됐다"고 밝혔다. 소조상 외에도 연화문 수막새 등 기와류 60여 점과 백제 벽화의 바탕재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벽판류 등의 유물이 함께 출토돼 백제시대 사찰 장엄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선기 책임연구원은 "현재의 익산을 경영한 백제 무왕대에 '제석사를 창건했으며 639년 불탑'이 세워졌다"며 "이곳에서 출토되는 기와와 소조상들은 인접한 제석사에서 공급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토된 조상들은 완전한 형태는 아니고 길이 20~30cm의 두상과 몸통, 좌대 등으로 되어 있다. 특히 두상의 우측 절반만 남아 있는 천부상은 고온으로 구워 회색을 띠고 있으며 약간 두툼한 불에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 전형적인 백제 불상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통일신라 때의 고승으로 의상(625~702)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의적(681~?)은 의상의 문하에서 수학한 화엄종의 인물이나 유식학을 공부한 법상종의 인물이 확실하다는 주장이나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열린 불교학연구회(회장 해주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의적(의상대강사)은 '의적의 사상 경향과 해동법상종에서의 위상'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의적은 25종의 저술을 남겼으나 그에 대한 국내 기록은 '의상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이라는 <삼국유사> 기록과 균여(923~974)의 <석화엄교분기원통초(釋華嚴教分通圖)>가 거의 유일하다. 이 때문에 원래 법상종 출신이었다가 의상의 가르침을 받고 화엄종으로 전향했다는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적 스님 의상의 제자 아니다"

최연식 씨, 현장문화 수탁, 동료로 봐야"

최 씨는 주로 일본측 문헌 자료인 <유식의등증명기(唯識義燈增明記)>, <대승의림장(大乘義林章)> 등을 근거로 △의적의 의상과 만나기 전에 이미 중국에 신유식(新唯識)을 전한 당나라 현장(602~664)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의상이나 원효(617~686)와 동시기인 7세기에 활동했고, △신라 법상종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의적을 현장의 문하로 볼 경우 적어도 현상이 입적하는 664년 이전에 중국에 유학해 수학했다는 것이 된다"며 "의상의 경우 661년에 중국에 유학했는데, 670년 귀국 후 두 사람이 만났을 때에는 사제 관계라기보다는 대등한 입장에 있는 동료로서의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매일 아침 나무아미타불을 칭명합시다. 나무아미타불.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어 갑시다.

전국 염불만일회 2003년도 여름 성지대회 대구 팔공산 은해사에서 만남시다!



-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부름시다 -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1998년부터 염불 10대성지를 찾아 금강산 건봉사, 전남 대원사, 설악산 백담사, 해남 미황사를 순례하였고 2003년도는 아래와 같이 대구 팔공산 은해사 여름 성지대회를 마련합니다. 전국에 계신 염불만일회 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 일 시 : 2003년 7월 27일 ~ 29일(2박 3일)
- ◆ 장 소 : 대구 팔공산 은해사
- ◆ 접 수 : 전화신청(동참금 60,000원)
- ◆ 신청대상 :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全國念佛萬日會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0 ☎(02)732-1215~7 / FAX (02)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초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 2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 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봄반)
2. 교육장소	동산 법당(동산불교회관)
3. 개강일시	2003년 6월 4일(수요일) 오후 7시
4. 교과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 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 교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 입학금	30,000원(반경험판 사진2매)
8. 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암, 당뇨, 혈압에 효과를 보이는"

차가버섯

차가버섯은 자작나무에서 자생하는 버섯으로 이 버섯이 처음 알려지게 된것은 구소련작가 솔제니친이 암환자들이 생존을 위해 골짜기에서 차가버섯을 달여 먹었다는 "암병동"을 발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후부터이다.

백두산, 개마고원, 오대산 등에서 자생하는 자연산이 약리효과 우수 현의학자 한영재 박사는 개마고원, 오대산, 설악산에서 자생하는 차가버섯이 외국산에 비하여 그 약리효과가 월등한 것으로 유방암, 위암, 자궁암, 백혈병, 폐암에 다량적으로 효과가 있으며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연치유력이 다른 물질에 비해 수백배에 달한다

면역력을 높혀 자연치유력을 높여주는 황산화효소(SOD)가 일반 식물에 비해 월등하다고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마고원의 자작나무에서 차가버섯을 달여먹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암, 혈압, 당뇨 등이 전혀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어 학자들의 연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암, 에이즈 및 당뇨를 치료하는 (책자 286P) 정가 12,000원

차가버섯의 실제와 응용
상담및주문 02)455-6944